

국내외 200개사 에너지 신제품 한눈에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16
16~18일 김대중센터

수소차부터 사물인터넷까지

18개국 '에너지 큰 손' 참가

한전 등 수출상당·투자유치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SWEET 2016 (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6)'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인 이번 전시회는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과 효율적 사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20개국 200개사가 참가.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ESS, 사물인터넷(IoT) 등 에너지효율 분야를 대표 품목을 전시한다.

국내의 에너지 산업부문을 선도하는 업체들도 참가해 제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한전을 비롯한 한전 KPS,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과 국내외 대기업, 해외 우수 기업들이 행사에서 제품을 선보인다. 이들 기업은 수출상담, 기술정보 교류, 투자 유치 등 활동도 펼친다.

해외바이어들도 행사장을 방문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에서 60여 명의 바이어가 광주를 찾는다. 브라질 최대 배

전사인 LIGHTSA, 한국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폴란드의 ECOJURA SPO사도 주요 참가 기업이다. 한국 기업에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할 예정인 미국 Hewama Corp사, 일본 전기제품으로 잘 알려진 YAMAHA사, 캐나다 스마트그리드시스템 전문업체 RTDS Technology사 등 해외 업체들은 에너지 개발과 보급 프로젝트 수주 활동을 벌인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한화큐셀코리아, 유니스, 한솔테크닉스, 발전6사 등 구매 담당자들도 참가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에너지밸리기술원이 주최하는 '에너지효율 국제세미나', 한국

ESS산업진흥회의 'ESS산업 해외진출 세미나'가 동시에 열려 최신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세미나', '전국 에너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등도 진행된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무공해 친환경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 버스과 태양광을 이용한 길거리 광고판,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도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한국전력과 전력산업 공기업의 나주 이전으로 호남이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SWEET전은 국내 유사 전시회가 저유가 여파로 추축하는 힘든 시기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역량강화·돌봄 등 15개

'여성친화마을' 사업 추진

광주시가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광주 공동체 실현을 위해 2016년도 '여성·가족친화마을' 광역형 모델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2월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돌봄, 건강, 여성역량강화 등 여성 수요를 반영한 15개 특화사업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존 공동시설을 활용해 마을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며 각 1개 마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여성·가족친화마을' 광역형 모델 특화사업은 시·구 협업사업으로 추진되며,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지역 여성단체 등 민간 주도로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풀뿌리 지역 여성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친화마을 광역형 모델 특화사업은 2012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광역모델 지정에 힘입어 아파트, 마을 등의 기존 공동시설을 활용해 여성의 시간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여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이다.

그동안 여성·가족친화마을조성사업은 2012년 광산구 삼성아파트 부녀회 '행운목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각 구별 1곳씩 총 2억원을 투자해 5곳을 시범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총 11개 마을을 조성했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정책관은 "여성친화마을사업이 여성이 참여하는 광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여성정책의 행복한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주기적으로 건설·정비 사업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담배연기 없는 거리 만들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최근 광주 상무지구 건강보험사거리에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사회 만들기' 범시민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건보공단 제공>

오염배출 심한 경유차 폐차펀드 최대 770만원 지원

광주시, 10년 이상 노후차 대상

광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조기 폐차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광주시에 연속 등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로 한정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총중량 2.5t 이상으로, 광주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 경유

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써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부품이 정상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주행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차령 10년 이상된 경유자동차 등이 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총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종합 소득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7월부터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구 미래형자동차 TF 구성

달빛동맹 후속 사업

규제 개선 협력 지원

광주시와 대구시가 미래형자동차 사업 기획을 위해 공동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의 자동차 관련 과장 등 실무진은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에서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육성 전략을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동·서지역을 대표하는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제도와 연계해 광주의 수소자동차산업,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적 각종 규제의 개선에 대해 상호 협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대구 공동 TF팀 구성은 지난해 12월1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시를 방문, 체결한 '달빛동맹 상생협력'의 후속조치로, 두 지역의 핵심 먹거리인 자

동차산업의 발전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핵심이라는데 공감하고, 국내 미래형친환경자동차산업의 선도도시로서 동반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미래형친환경자동차는 전기를 기반으로 기술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타급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기획, 발굴과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육성 전략을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동·서지역을 대표하는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제도와 연계해 광주의 수소자동차산업,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적 각종 규제의 개선에 대해 상호 협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 두 지역의 중간 지점인 함양 인근에서 워크숍을 열어 정보를 나누고, 회의를 거쳐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통해 정지적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한의사회는 최근 한의사회 3층 대회의실에서 '제3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선출했다. <광주시한의사회 제공>

광주시 한의사회 안수기 회장 연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광주시한의사회는 최근 한의사회 3층 대회의실에서 '제3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수기 회장·최용준 수석 부회장의 연임을 확정했으며, 감사는 방기봉(연임), 조경화 원장을 선출했다.

대의원총회 의장(홍광표)은 "지난해 2015년에는 광주U대회, 경로당건강지킴이, 보건소 직급 상향 등 많은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며 "외적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내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많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회장은 "광주시한의사회의 100년을 바라보는 동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며 "각종 회무와 회의 및 연구와 교육과 모임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관건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광주U대회에서 활약한 성과를 보고하는 슬라이드 상영이 진행되어 대의원들과 참석인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채희종기자 chae@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